

일본 쓰쿠바 대학[筑波大學]의 조선(朝鮮) 관련 서적과 오카쿠라 요시사부로(岡倉由三郎)의 장서(藏書)

유 춘 동*

국문초록

이 글은 일본 쓰쿠바 대학[筑波大學] 중앙도서관에 있는 조선(朝鮮)시대 전적, 조선 관련 서적과 오카쿠라 요시사부로(岡倉由三郎, 1868~1936)의 장서(藏書)를 살펴본 것이다.

일본 이바라키 현[茨城縣] 쓰쿠바 시에 있는 쓰쿠바 대학은 ‘일본 동경교육대학(東京教育大學)’을 개명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자리 잡은 곳이다. 이 대학에는 총 60종의 조선시대 전적(典籍)이 있다. 이 사실은 1976년 후지모토 유키오(藤本幸夫) 교수를 통해서 알려졌다.

그러나 이곳에 “누가, 어떤 이유로 이 책을 수집했는지, 그리고 총량은 어느 정도인지”는 보론(補論)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이 대학의 전신(前身)이었던 ‘동경교육대학’ 시절에 작성되었던 『도서원부(圖書原簿)』와 『괘도목록(掛圖目錄)』을 보면 지금보다 더 많은 조선시대 전적, 조선 관련 서적들의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함께 밝힐 문제는 “이 책의 수집가”이다. 이 책들은 대부분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에서 대학으로 보낸 것도 있지만 오카쿠라 요시사부로가 수집했던 것도 포함되어 있다.

오카쿠라 요시사부로는 현재 일본의 유명한 영문학자로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는 1891년 조선에 한성일어학당(漢城日語學堂)이 처음 만들어지자 이곳에 부임했던 최초의 일본어 교사였다. 그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조선의 책들을 틈틈이 수집했고, 1893년 『철학잡지(哲學雜誌)』에다가 한글로 쓴 서적의 의미와 조선의 대중문학(大衆文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 이 과정에서 세책(貰冊) 고소설과 조선시대 대표적 대중가요집인 『남훈태평가』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가 썼던 글은 이후 모리스쿠랑(Maurice Courant)의 『한국서지(Bibliographie Coréenne)』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글을 발표하기까지 오카쿠라 요시사부로는 조선시대 책들을 착실히 수집했고, 이후 그의 책은 이 대학의 장서(藏書)가 되었다.

이 글은 이처럼 그동안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쓰쿠바 대학의 있는 조선시대 전적과 관련 서적에 대한 부분, 오카쿠라 요시사부로가 수집했던 장서(藏書)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주제어] 일본 쓰쿠바 대학[筑波大學], 오카쿠라 요시사부로(岡倉由三郎), 조선시대 서적, 조선 관련 서적, 한국서지, 모리스쿠랑, 세책본, 방각본 소설

* 선문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조교수 / sechaek@hanmail.net

— | 목 차 | —

I. 서 론	Ⅲ. 오카쿠라 요시사부로(岡倉由三郎)가
Ⅱ. 쓰쿠바 대학(筑波大學)의 도서관부와 과도목록에	조선에서 수집했던 책들
기재된 조선의 책, 조선에 관한 책	Ⅳ. 마무리와 과제

I. 서 론

이 글은 일본 쓰쿠바 대학(筑波大學)¹⁾ 중앙도서관에 존재하는 조선(朝鮮)시대 전적과 조선 관련 서적들을 살펴보고, 이곳에 있는 오카쿠라 요시사부로(岡倉由三郎, 1868~1936)의 장서(藏書)를 다룬 것이다.

쓰쿠바 대학은 일본 이바라키 현(茨城縣) 쓰쿠바시에 있는 종합대학교로서, 1973년 일본 국립학교 설치법 시행 규칙에 따라 ‘일본 동경교육대학(東京教育大學)’을 개명(改名)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탈바꿈한 곳이다.²⁾

이 대학에는 총 60종의 조선시대 전적(典籍)과 조선 관련 서적들이 있다. 이 사실은 일본인이면서 조선 서지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 중의 한 분인 후지모토 유키오(藤本幸夫) 교수에 의하여 1976년에 밝혀진 것이다.³⁾ 이후 국립문화재연구소와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이 논문에 의거하여 이 책들의 서지(書誌)와 총량을 책자를 통해 공지(公知)하고 있으며, 자료 중의 일부를 마이크로필름으로 복제해서 연구자와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있다.⁴⁾

그러나 이 대학에 이러한 책들이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책을 수집했고 총량(總量)”에 대해서는 보론(補論)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이 대학의 전신(前身)이었던 ‘동경교육대학’ 시절에 작성되었던 도서관부(圖書原簿)와 과도목록(掛圖目錄)을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조선시대 전적과 조선 관련 서적들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함께 규명해야 할 문제는 “이 책을 수집한 사람”이다. 이 책들은 대부분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에서 수집해서 보낸 것이다. 하지만 오카쿠라 요시사부로의 책도 이 안에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들은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다.

오카쿠라 요시사부로(岡倉由三郎)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의 영문학자로 알려져 있다.⁵⁾ 하지만 그의 이력을

1) ‘筑波大學’의 한글 표기는 츠쿠바 대학, 쓰쿠바 대학, 쓰쿠바 대학 등으로 다양하다. 이 글에서는 이 대학 홈페이지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쓰쿠바 대학’으로 적는다.

2) 쓰쿠바 대학의 역사는 대학 홈페이지(<http://www.tsukuba.ac.jp>)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이 대학은 일본 사범대학(日本師範大學)으로 개교(開校)한 뒤로, 동경고등사범학교, 동경문리과대학, 동경교육대학, 쓰쿠바 대학으로 대학의 명칭과 편제가 계속 바뀌었다.

3) 藤本幸夫, 「東京教育大學藏 朝鮮本について」, 『朝鮮學報』 81, 1976.

4)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책들의 서지와 총량을 공개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이 자료 중에서 15종을 마이크로필름으로 복제해 들어와 일반인들과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5) 루스 베네틱트의 저서 『국화와 칼』을 보면 오카쿠라 요시사부로를 일본의 유명한 영문학자로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윤수안의 책에서는 그가 근대 일본 영어 교육에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사실들을 다루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두 저서로 미룬다. 루스

살펴보면 구한말 조선에 제일 먼저 입국했던 외국인 중의 한 사람이었으며, 조선의 전적(典籍)과 서적 문화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연구를 했던 초기 ‘조선학(朝鮮學)’ 연구자였다.

그는 1891년 조선에 한성일어학당(漢城日語學堂)이 만들어지자 이곳에 부임했던 최초의 일본어 교사로,⁶⁾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틈틈이 조선의 책들을 수집했고, 1893년 『철학잡지(哲學雜誌)』에다가 한글로 쓰여진 서적이 지닌 의미와 조선의 대중문학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⁷⁾ 이 과정에서 그는 세책(貰冊) 고소설과 조선시대 대표적인 노래 모음집(歌集)인 『남훈태평가』를 소개하기도 했다.⁸⁾ 이후 그의 글은 모리스 쿠랑(Maurice Courant)이 『한국서지(Bibliographie Coréenne)』를 작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오카쿠라 요시사부로가 수집했던 조선시대 책들과 관련 서적들은 그가 동경교육대학(현 쓰쿠바 대학)의 교수직을 퇴임하고 이 대학에 기증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대학의 장서(藏書)가 된 것이다.

이 글은 이처럼 쓰쿠바 대학의 도서관부와 궤도목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조선시대 책들과 관련 서적들에 대한 숨은 사연, 오카쿠라 요시사부로가 수집한 장서(藏書)에 대하여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II. 쓰쿠바 대학(筑波大學)의 도서관부(圖書原簿)와 궤도목록(掛圖目錄)에 기재된 조선의 책, 조선에 관한 책

쓰쿠바 대학 종합도서관(綜合圖書館)의 주 출입구를 지나면 곧바로 일반 열람실이 있다. 이 앞에는 작은 방 하나가 있는데, 이곳은 쓰쿠바 대학의 역사(歷史)와 연혁(沿革)을 다룬 각종 요람(要覽), 졸업생들의 명부(名簿)와 졸업 앨범, 이 대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전체 서적들의 목록(目錄)을 보관하고 있다.

이 책장에는 <사진 1>처럼 쓰쿠바 대학의 전신이었던 동경교육대학 시절에 작성한 『도서관부』와 『궤도목록』이 있다. <도서관부>는 전체 3권으로, 도서관에서 붙인 도서번호(圖書番號)의 순서대로 서지사항과 개략적인 특징 등을 기재해 놓았다.⁹⁾ <궤도목록>은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대학에 있는 지도(地圖)와 지지(地誌) 자료만 따로 정리한 것이다.

4권의 책들은 모두 ‘서명(書名) - 저/역자씨명(著譯者氏名) - 출판연월(出版年月) - 권목(卷目) - 책수(冊數) - 번호(番號) 순서’대로, 대학 내의 소장 자료들을 적어 두었다.

베네틱트(저), 김윤식·오인석(역), 『국화와 칼: 일본 문화의 틀』, 을유문화사, 2008; 윤수안, 『제국과 영어, 영문학』, 소명출판, 2014.

6) 이나바 쓰기오(저), 홍준기(역), 『구한말 교육과 일본인』, 온누리, 2006.

7) 이윤석·大谷森繁·정명기, 『세책 고소설 연구』, 해안, 2003.

8) 이상현·김채현·윤설희, 「오카쿠라 요시사부로 한국문학론(1893)의 근대 학술사적 함의」, 『일본문화연구』 50, 2014.

9) 『도서관부』를 확인하여 소장의 경위(입수일), 소장 및 기증자를 확인하는 작업은 정병설의 연구를 참조했다. 정병설, 「도서관부를 통해 본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의 한국고서 수집」, 『조선 기록문화의 역사와 구조』 1, 소명출판, 2014.



〈사진 1〉 서가에 꽂힌 『도서원부』



〈사진 2〉 『도서원부』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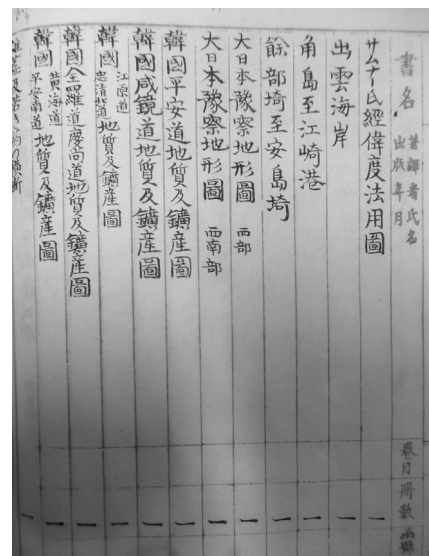
그런데 이 책자들을 보면 후지모토 유키오 교수가 1970년대 소개했던 조선시대의 전적, 조선 관계 자료 60종 이외에, 추가로 30여 종이 더 확인된다.

먼저 『괘도목록』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책자는 도서관에 있는 일본을 비롯하여, 중국(中國), 유구(琉球), 조선(朝鮮)의 각종 지도와 지리지(地誌) 자료(地誌資料), 학생들에게 교육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괘도를 순서대로 적은 것이다.

목록에 실린 조선과 관련된 책은 “『韓國平安道地質及鑛產圖』, 『韓國咸鏡道地質及鑛產圖』, 『韓國江原道忠清北道地質及鑛產圖』, 『韓國全羅道慶尙道地質及鑛產圖』, 『韓國黃海道平安南道地質及鑛產圖』”와 같은 조선의 광물자원(鑛物資源)의 지도, 메이지(明治) 시기, 일본 정부(政府)와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일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했던 『조선전도(朝鮮全圖)』, 『조선여지도(朝鮮輿地圖)』, 『조선팔도지도(朝鮮八道地圖)』 등이다.

이 책들은 “출판연월(出版年月)”을 통해서, 일제강점기 이전인 메이지(明治) 시기부터, 다이쇼(大正), 쇼와(昭和) 연간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수집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바로 이 목록을 통해서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조선 전적과 조선 관련 서적은 30여 종이다.

하지만 30여 종의 서적은 목록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모든 자료를 실본(實本)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



〈사진 3〉 『괘도목록』의 내용

다. 서적의 심한 훼손으로 자체 폐기(廢棄)한 것도 있고, 1923년 관동대지진(關東大地震) 때의 화재로 소실(燒失)된 것도 있다.

도서관에서 폐기했던 책은 목록에다가 “昭和 32年 1月 9日 廢棄”이라는 도장을 찍었다. 1957년에 도서관에서 책들을 정비하면서, 훼손이 심각한 책들은 골라서 모두 폐기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화재로 훼손되어 없어진 책들은 “大正 十三年 十月 三日 決定 燒失圖書”라는 도장을 찍었다. 1923년에 일어난 관동대지진으로 이 대학 도서관의 책들이 화마(火魔)를 입었고, 1년 뒤인 1924년에 복원이 불가능한 책들은 선별하여 모두 소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서 현재 실본(實本)으로 남은 것은 10여 종이다.

한편, 『도서관부』를 보면 후지모토 교수가 밝힌 60종 이외에, 추가로 조선 전적과 조선과 관련된 서적들을 더 확인할 수 있다. 이 책들은 (1) 『징비록(懲毖錄)』, 『동국통감(東國通鑑)』, 『조선사정(朝鮮事情)』, 『조선회보(朝鮮彙報)』처럼 일본에서 만들어진 책, (2) 『조선국부산항도(朝鮮國釜山港圖)』와 같이 조선총독부가 만든 조선의 항구에 대한 정보를 담은 책, (3) 『조선래빙기(朝鮮來聘記)』와 같은 조선통신사(朝鮮通信使)와 관련이 있는 책, (4)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처럼 조선시대 만들어진 책으로 나눌 수 있다.¹⁰⁾

이 자료들 역시 『도서관부』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언급한 이유로 파기된 것도 있고 소각된 것도 있다. 이미 알려진 60종을 제외하고,¹¹⁾ 목록으로 추가 확인할 수 있는 23종이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번호	서적의 성격과 분류	서명(署名)	권수(卷數) 종수(種數)	실본(實本) 유무
1	조선에서 만든 책	은봉야사별록(隱峰野史別錄)	1책	○
2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3책	○
3		대원군실전(大院君實傳)	1책	○
4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	3책	×
5	일본에서 만든 조선 관련 서적 : 통신사 관련 책	조선신사어례차제(朝鮮信使御禮次第)	1책	○
6		조선래빙기(朝鮮來聘記)	1책	○
7		조선응접기사(朝鮮應接紀事)	1책	○
8		조선국왕신사래조기 (朝鮮國王信使來朝記)	3책	○
9		접조기사(接朝紀事)	1책	○
10		접조음어(接朝瘖語)	1책	○
11		조선인대로행렬지기 (朝鮮人大路行列之記)	1책	○

10) 이 책들은 조선에서 만든 책이 아니기 때문에 조선과 관계된 책, 자료 등을 부른다.

11) 60종의 목록은 <부록>으로 제시했다.

번호	서적의 성격과 분류	서명(署名)	권수(卷數) 종수(種數)	실본(實本) 유무
12	일본에서 만든 조선 관련 서적 : 풍물, 지리, 지지 관련 책	조선견문록(朝鮮見聞錄)	1책	×
13		신찬(新撰) 조선지리지(朝鮮地理誌)	1책	○
14		조선휘보(朝鮮彙報)	1책	○
15		조선수로지(朝鮮水路誌)	1책	○
16		조선지명자휘(朝鮮地名字彙)	1책	○
17		조선전도(朝鮮全圖)	6종	○
18		조선팔도전도(朝鮮八道全圖)	1책	○
19		교린수지(交隣須知)	1책	○
20	조선총독부와 기관에서 만든 조선의 주요 시정(市政) 자료	조선국부산항도(朝鮮國釜山港圖)	1책	○
21		조선국거제도급한산해도 (朝鮮國巨濟島及閑山海圖)	1책	○
22		조선국월미도해협지도 (朝鮮國月尾島海峽之圖)	1책	○
23		조선전라도순천포도 (朝鮮全羅道順天浦圖)	1책	×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4)는 조선에서 만든 서적이고, 나머지는 일본에서 펴낸 조선과 관련된 서적들이다. 이 대학에 이처럼 조선 전적과 조선과 관련된 책들을 소장하고 있는 이유는 이 대학의 설립 역사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쓰쿠바 대학은 동경고등사범학교(東京高等師範學校), 동경문리과대학(東京文理科學大學), 동경교육대학(東京教育大學)으로 계속 명칭과 편제가 바뀌다가 1970년대 현재의 ‘쓰쿠바 대학’으로 개명(改名)하여 종합대학교가 되었다.

쓰쿠바 대학의 전신이었던 동경고등사범학교와 동경 문리과대학은 우수한 교원 양성, 일본의 고위 공무원과 관료 양성을 목적으로 세워졌다. 교원 양성은 일본 내에서 교육을 담당할 인력도 있었지만 대부분 일본의 식민지 지역에 파견할 교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학교에서는 이 학생들에게 일본이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 기타 관련 지식을 함께 가르쳐야만 했다.

그리고 이 대학은 일본의 고위 공무원 자격시험이었던 고등문관시험(高等文官試驗)의 합격자를 대거 배출한 곳으로 유명하다. 1894년에 첫 자격시험이 시작된 뒤로 1948년 이 제도가 없어질 때까지 총 56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는데, 이 숫자는 일본 내 대학 중에서 11번째에 해당된다.¹²⁾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쓰쿠바 대학의 전신이었던 동경고등사범학교, 동경문리과대학, 동경교육대학은 일본에 있는 다른 대학과 비교해서, 조선

12) <https://ko.wikipedia.org/wiki:> <http://blog.naver.com/caesar117/70166362298>, [cited 2017. 8.20]



〈사진 4〉 〈해동제국기〉의 소실(燒失)을
기재한 내용

시대 전적과 조선 관련 서적들을 많이 수집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시대 전적과 조선과 관련된 서적들이 이 대학에 집중적으로 들어왔던 시기는 동경사범대학(東京師範大學) 때부터였다. 동경사범대학은 1873년부터 1885년까지 존속했다.

현재 실본(實本)으로 남은 책들은 대부분 ‘東京師範學校圖書印’이 찍혀져 있는 것으로 보아, 1873년부터 1885년 사이에 이 대학으로 들어왔던 것임을 알 수 있다.

후지모토 유키오 교수가 확인했던 60종, 필자가 새로 확인한 33종을 더한 총 93종의 책은 관동대지진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대학에서 소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관동대지진 당시의 화마(火魔)로 인하여 이 책들은 소실(燒失) 되어 현재 일부만 남게된 것이다. 이 대학에 있다가 화재로 없어진 대표적인 조선시대 책은 이제는 〈사진 4〉의 기록으로만 남아있는 『해동제국기』이다.

지금까지 관동대지진으로 없어지거나 피해를 입었던 조선시대 전적은 일본 고마자와 대학에 있는 가나자와 쇼사부로(金澤庄三郎, 1872~1967)의 책들만이 알려졌다.¹³⁾ 그러나 쓰쿠바 대학에도 이러한 자료들이 존재하고 있어, 우리의 가슴 아픈 근현대사(近現代史)의 일면을 재확인할 수 있다.

Ⅲ. 오카쿠라 요시사부로(岡倉由三郎)가 조선에서 수집했던 책들

쓰쿠바 대학은 동경고등사범학교, 동경문리과학대, 동경교육대학으로 변모하면서 대학도서관의 장서(藏書)가 지속적으로 확충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학에서 정년(停年)을 마친 교수들이 자신이 갖고 있던 책들을 기증한 것도 한 몫을 했다.

이 책들 중에서 주목할 것이 오카쿠라 요시사부로가 수집했던 조선시대 전적(典籍)들이다. 그가 대학에 기증한 책은 모두 2,417책이다. 이 책은 1940년 9월에 기증했는데, 대부분 ‘岡倉由三郎印’이라는 장서인(藏書印)이 찍혀있다. 그가 기증한 책 중에서, 조선시대 전적만을 따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3) 유춘동, 「일본 고마자와 대학 다쿠소쿠(瀧足) 문고 소장, 조선전적(朝鮮典籍)과 고소설에 대한 연구」, 『한국학논집』 48, 2012.

번호	자료의 성격	제목(題目)	책수	현존 여부
1	방각본 (坊刻本)	남훈태평가	1책	○
2		소대성전	1책	○
3		숙영낭자전	1책	○
4		숙향전	1책	○
5		심청전	1책	○
6		양풍운전	1책	○
7		유서필지	1책	○
8		임장군전	1책	○
9		적성의전	1책	○
10		증보연간독	1책	○
11		홍부전	1책	○
12	한적(韓籍)	이십일도회고시(二十都懷古詩)	1책	○
13		전운옥편(全韻玉篇)	1책	○
14		동국문헌록(東國文獻錄)	1책	○
15		불설아미타경요해(佛說阿彌陀經要解)	1책	○
16		사례촬요(四禮撮要)	1책	○
17		화동정음통석운고(華東正音通釋韻考)	1책	○
18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25책	○
19		전라도읍지(全羅道邑誌)	1책	○
20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51책	○
21		대동강역고(大韓疆域考)	1책	○
22		약장합편(約章合編)	1책	○
23		귀은당집(歸恩堂集)	1책	○
24		충렬실록(忠烈實錄)	2책	○
25		어정대학유의(御定大學類義)	1책	○
26		평양지(平壤誌)	1책	○
27		가례집람(家禮輯覽)	1책	○
28		조선왕자묵본(朝鮮王子墨本)	1책	○
29		용강점선현신사비(龍岡沾線縣神祠碑)	1책	○
30		황명흠차경리조선군무도찰원 좌첨사어사양공거사비명병서 (皇明欽差經理朝鮮軍務都察院 右僉都御史楊公去思碑銘并序)	1책	○
31		현감신후길원충렬비(縣監申侯吉元忠烈碑)	1책	○
32		어정규장전운(御定奎章全韻)	1책	○
33		대각국사외집(大覺國師外集)	1책	○
34		대각국사문집(大覺國師文集)	2책	○

오카쿠라 요시사부로가 수집했던 조선시대 책들은 모두 34종 110책이다. 이 책은 그가 한성 일어학당에 초빙 교사로 부임했던 1891년부터¹⁴⁾ 교사 업무를 마쳤던 1893년까지 수집했던 것이다. 그가 수집했던 책은 주로 방각본(坊刻本) 소설과 노래책[歌集]이었고, 이외에도 운서류(韻書類), 사전류(辭典類), 역사서류(歷史書類), 비문류(碑文類) 등이었다.

오카쿠라 요시사부로가 세책점(貰冊店)과 조선의 대중문학에 관심을 갖고, 시간이 날 때마다 세책점이 물려있는 청계천 주변을 찾아가 세밀히 연구하며, 관련 서적을 수집했던 일들은 그가 발표한 『哲學雜誌』를 통하여 잘 알려져 있다.¹⁵⁾ 그리고 방각본 중에서 『남훈태평가』를 택하여 일본어로 번역했던 사실은 이미 논문을 통해서 다루어진 적이 있다.¹⁶⁾ 그러나 그가 수집했던 책들의 총량과 실본은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쓰쿠바 대학에 있는 책들은 그가 어떤 책들에 관심을 두었고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구입했는지를 알려준다.

그는 앞선 논문에서 1891년부터 1893년 사이에 한양 청계천 주변에 있었던 세책점과 서점을 통해서 이 책들을 구매했음을 밝혔다. 그가 수집한 방각본 소설은 『소대성전』, 『숙영낭자전』, 『숙향전』, 『심청전』, 『양풍운전』, 『임장군전』, 『적성의전』, 『흥부전』이다. 이 책들은 그가 조선의 세책점, 조선의 대중문학에 관심을 갖고 직접 자료 수집도 병행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가 수집했던 방각본 소설을 보면 『남훈태평가』와 같이 각 행마다 일본어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사실을 볼 수 있다. 오카쿠라 요시사부로는 『남훈태평가』의 사례를 본다면 방각본 소설 또한 일본어로 출간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는 1893년 조선의 세책점과 대중문학, 『남훈태평가』에 대한 한 편의 논문과 일본어로 소개한 글만 발표하고, 방각본 소설에 대한 연구, 더 나아가 조선시대의 전적, 조선의 문화(文化)에 대하여 관심을 더 이상 갖지 않게 되었다.

그 대신에 그는 영문학(英文學)으로 관심 분야를 옮겨 이 분야에만 몰두하게 되었다. 동경교육대학의 학과 교수로 부임하면서, 그가 가르칠 분야, 관심을 두어야 할 분야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가 계속해서 조선의 세책점과 대중문학에 관심을 갖고 연구했으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을까를 생각하면 대단히 안타까운 지점이다.

그가 어렵게 수집했으나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34종 110책의 조선시대 전적들은 생각으로 구상은 했으나 글로 옮기지 못했던 ‘조선의 대중문학’, ‘조선시대의 세책점’에 대한 그의 애정과 생각을 추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다.

14) 당시 그가 맺었던 일본어학교 계약서(日本語學校 教師(岡倉由三郎) 雇傭契約書)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http://e-kyujanggak.snu.ac.kr/cited> 2017. 8. 20

15) 이윤석·大谷森繁·정명기, 앞의 책, 51~52쪽.

16) 이와 관련된 자세한 논의는 이상현·김재현·윤설희, 앞의 논문 참조.

IV. 마무리와 과제

이상과 같이 일본 쓰쿠바 대학에서 존재하는 조선시대 전적, 조선과 관련된 책들, 오카쿠라 요시사부로가 수집했던 장서(藏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이 대학의 『도서원부(圖書原簿)』와 『괘도목록(掛圖目錄)』을 통해서, 현재보다 더 많은 조선시대 전적과 조선에 관한 책들이 이곳에 있었지만 자료의 훼손으로 인한 폐기, 관동대지진의 여파로 소각된 책들이 있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쓰쿠바 대학에는 오카쿠라 요시사부로(岡倉由三郎)의 장서(藏書)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구한말 조선에 입국하여 일본어를 가르쳤던 그가 단지 조선시대의 세책집, 조선시대의 대중문화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연구를 위하여 직접 자료를 구매하고 수집했던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쓰쿠바 대학의 전적들을 조사하고 검토하면서, 이미 확인된 해외 기관에 있는 우리나라 고전적(古典籍)이라도 재조사와 면밀한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삼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해외 기관에 있는 자료들은 서지사항과 같은 책의 기초적인 정보만을 조사하고 기술할 것이 아니라 이 책들이 해외로 유입된 경로, 자료를 수집했던 수집가, 자료 수집의 목적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도 다시 생각해 보았다. 이러한 관점이 확립되어야 해외 기관에 있는 ‘옛날 책’들의 의미, 더 나아가 ‘옛 책의 문화사(文化史)’가 규명될 것이며, 한국학의 외연이 확장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오카쿠라 요시사부로가 수집했던 방각본 소설의 성격과 가치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실본의 확인과 조사는 모두 마쳤으나 몇 종은 복사하지 못한 이유로 현재로서는 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과제는 차후 과제로 넘긴다.

〈참고문헌〉

- Courant, *Bibliographie Coréenne*, Tome premier, Paris, 1894~1901.
-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해외 한국본 고문헌 자료의 탐색과 검토』, 삼경문화사, 2012.
- 金沢庄三郎, 『濯足庵藏書六十一種』, 金沢博士還曆祝賀會, 1911.
- 東洋文庫, 『増補東洋文庫朝鮮本分類目録』, 日本國立國會圖書館, 1979.
- 藤本幸夫, 「東京教育大学藏朝鮮本について」, 『朝鮮學報』 81, 1976.
- 藤本幸夫, 『日本現存朝鮮本研究 集部』,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06.
- 루스 베네틱트(저), 김윤식·오인석(역), 『국화와 칼: 일본 문화의 틀』, 을유문화사, 2008.
- 심우준, 『日本訪書志』,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 유춘동, 「국의소재문화재단지원, 구한말 영국공사 애스턴(Aston)이 수집했던 조선시대 전적 조사의 성과와 과제」, 『열상고전연구』 46, 2015.
- 유춘동, 「근대 초기에 해외로 반출된 고소설의 문제」, 『코기토』 77, 2015.
- 유춘동, 「일본 고마자와 대학 다쿠소쿠(濯足) 문고 소장, 조선전적(朝鮮典籍)과 고소설에 대한 연구」, 『한국학논집』 48, 2012.
- 유춘동·이혜은,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소장 활판본 자료 연구」, 『동아인문학』 37, 2016.
- 윤수안, 『제국과 영어, 영문학』, 소명출판, 2014.
- 이나바 쓰기오(저), 홍준기(역), 『구한말 교육과 일본인』, 온누리, 2006.
- 이상현, 『한국 고전번역가의 초상, 게일의 고전학 담론과 고소설 번역의 지평』, 소명출판, 2013.
- 前間恭作, 『古鮮冊譜』 1~2, 東洋文庫, 1944.
- 정광·藤本幸夫·최명옥·송철의·심경호, 「일본에 있는 국어사 연구 자료」, 학술진흥원, 1998.
- 정병설, 「도서관부를 통해 본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의 한국고서 수집」, 『조선 기록문화의 역사와 구조』 1, 소명출판, 2014.
- 한재영·이현희·가와사키 케이코, 『한국 서지학의 선편: 마에마 교사쿠의 작업을 중심으로』, 서울대 출판문화원, 2015.
- 한지희·김효경·이혜은, 「프랑스국립도서관 필사본장서부에 소장된 한국 고문헌 연구」, 『서지학연구』 69, 2017.

* 이 논문은 2017년 8월 23일에 투고되어,
2017년 9월 13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6년 9월 2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6년 9월 29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 Abstract ■

A Study on the Chosun-related rare Books and the Collection of Okakura Yosaburo's Collection in the University of Tsukuba

Yoo, Choondong*

This article examines the books related to the Joseon Dynasty at the University of Tsukuba and discusses the collection of the books of Yoshisaburo Okakura (1868~1936).

It is already known that there are a total of 60 kinds of Joseon Dynasty Rare Books in this university. However, there is a need for a supplementary argument in this university about “who collected books through which path, and how much the total is.”

The reason is that I can see more books of Korea and books related to Joseon in the view of the books and documents that were written in the days of Tokyo University of Education.

In addition, we need to look at this issue with “The person who collected this book”. These books were collected and sent by the Chosun Governor-General's Office, but included a book by Saburo Okakura.

He was a researcher of Joseon scholarship who came to the Joseon Dynasty and studied various aspects of the Joseon dynasty and book culture. In 1893, he introduced the popular literature of Chosun, the Rental book of Joseon(sechaek), and the poetry of Namhuntaepyeongga through philosophical magazines. This was reflected in Maurice Courant's Bibliographie Coréenne (Korean Bibliography).

The books collected by Okakura Yoshisaburo became collections of this university. In this article, we looked at things related to this in turn.

[Key Words] Tsukuba University(筑波大學), Yoshisaburo Okakura(岡倉由三郎), The books related to the Joseon Dynasty, Lending Book, sechaek(贗冊)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 Culture Contents, Sunmoon University